

수막새의 동범와(同范瓦)에 대한 검토

- 월성해자 출토 단판연화문 수막새를 중심으로 -

이 선 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II. 월성해자 유적

1. 월성해자와 발굴현황

III. 동범와 검토

1. 정의
2. 검토방법

IV. 월성해자 출토 동범와

1. 동범와의 예
2. 동범와의 지역별 출토양상

V. 맺음말

국문 요약

경주 월성은 파사니사금(婆娑尼師今)때 축조된 신라의 왕성으로서 정치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적이다. 그러한 월성을 에워싸고 있는 월성해자는 전시(戰時)에는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방어적 역할과 함께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조경의 역할을 담당한 시설물이다.

월성해자 유적의 발굴은 198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그 중 다량·다종의 수막새들은 신라 초기부터 통일기를 거쳐 그 이후 시기까지 신라시대 막새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그 가치는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기와는 왕궁(王宮), 사찰(寺刹), 산성(山城) 등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물에서부터 일반적인 기타 건물지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수량에서도 다른 유물들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가장 취약한 분야로 남아있으며,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궁하게 남아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최근 수많은 발굴을 통한 기와 수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문양의 계보와 제작과정 등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기서는 월성해자 출토 단판연화문 수막새를 대상으로 동범와에 관한 판별을 하고자 한다. 그 동안 유사와(類似瓦), 동형와(同形瓦)등으로만 판단되었던 막새들의 세부적 특징을 비교해 「동범와」임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다. 동범와에 관한 정확한 판단방법, 동범와로 묶인 형식의 시간적 순서 배열과 동범와가 출토되는 위치 등을 파악함으로써 동범와 판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결과 다종의 수막새에서 하나의 범(范)으로 찍어낸 막새, 즉 동범와를 판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동범와들은 출토위치에서 다시 하나로 묶이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동범와의 출토위치를 통해 월성해자의 시기적인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와 주변유적인 안압지와의 연관성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와범이 확인되지 않아 역으로 막새들의 세부적 특징을 비교해 동범와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범와라는 용어사용에 있어 동범요소의 정확한 확인 후에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월성해자 동범와를 통해 월성해자의 지역별 시기를 알아 보았다.

주제어 : 월성해자, 단판연화문 수막새, 와범, 동범와, 연못형해자, 석축해자, 안압지

I. 머리말

기와는 건축물의 지붕을 덮는 재료로 좋은 점토를 사용해 와통(瓦桶) 및 와범(瓦范) 등을 이용해 모양이나 문양을 제작한 후 가마에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 낸 건축부재의 하나이다. 그 이전에는 이엉, 나무껍질이나 풀 등의 식물성 재료를 이용해 지붕을 덮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¹⁾ 이것은 내구력(耐久力)이 약해 좀 더 견고하고 내구력이 강한 재료를 찾는 결과 진흙을 구워 만든 반영구적인 기와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기와는 무게가 무거우므로 그것을 지탱할 수 있게 건축물의 뼈대가 이전의 것보다 튼튼한 구조로 바뀌게 되었으며, 따라서 건축물의 발전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기와는 인류사회가 한 단계 진보적인 발전을 했음을 보여주는 잔여물이자 인류가 만들어낸 생활 속 지혜의 소생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와가 유입된 것은 중국 한나라의 무제(武帝)가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멸망시킨 후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한 시기인 기원전 2~1세기 경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시기 우리나라에도 조와(造瓦) 기술의 전래로 기와가 제작되게 된다.

처음에 단순히 지붕을 단단히 만들어주는 목적에서 사용된 기와는 시대가 지날수록 점차 발전하면서 장식의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어 삼국시대에서는 기와를 제작하는 전문집단이 생겨나고,²⁾ 백제에는 나라에서 쓰는 기와만을 전담하는 와박사(瓦博士)라는 직제가 있었고, 다른 나라에까지 기와제작기술을 전수하면서 국제적인 문화교류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기와는 왕궁, 사찰, 산성 등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물에서부터 일반적인 기타 건물지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수량에서도 다른 유물들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가장 취약한 분야로 남아있으며,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궁하게 남아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최근 수많은 발굴을 통한 기와 수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문양의 계보와 제작 과정 등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여러 연구 과제 중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고신라 막새를 대상으로 동범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동범와에 관한 정확한 판단방법, 동범와로 묶인 기와들의 시간적 순서 배열과 동범와가 출토되는 위치 등을 파악하고, 동범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1) 『舊唐書』, 東夷傳 高麗條, “... 其所居必山谷 皆以茅草葺舍 唯佛寺神廟及王宮官府乃用瓦...”

2) 우리나라에 기와가 전래된 三國時代에는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기와를 생산하였으므로 국가가 瓦窯 조영의 주체가 되었으며,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서는 기와의 需要增加로 인한 大量生産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窯가 민간에서도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들로 동범와 판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월성해자와 유적

1. 월성해자(月城壕子)와 발굴현황

월성은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387-1번지에 속해있는 신라시대 토성으로 전체적인 모습은 남천에 의해 남편이 만곡(彎曲)되어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다. 총 면적은 193,845㎡(약 58,638평) 정도이며, 성 내부의 면적은 112,500㎡(약 34,031평) 정도이다. 월성의 길이는 동서 890m, 남북 260m 정도로 월성(月城), 반월성(半月城), 신월성(新月城), 재성(在城)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다.

월성은 다른 궁성 연구에 비해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편으로 내부조사와 외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도 월성 내부의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성벽 및 문지, 건물지, 석빙고, 추정연지 등의 보고가 자세히 이루어졌다.³⁾ 외부조사는 1984년 9월부터 1985년 8월까지 성벽 외곽을 따라 시굴조사⁴⁾가 이루어져 해자의 규모 및 형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발굴은 1985년부터 1차 조사를 포함해 10년 계획을 세워 연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6년 현재까지 월성해자에 대한 발굴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발굴조사 내용은 1990년에 보고서로 보고되었으며,⁵⁾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발굴조사 내용은 2004년 보고서로 간행되었다.⁶⁾

그 외 월성에 관한 연구는 몇 편에 지나지 않으며,⁷⁾ 대부분 신라왕경 연구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연구되어 왔다.⁸⁾

월성에 대한 발굴은 주로 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 나(월성동편), 다(월성북편), 라(월성서편)로 지역을 나누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자란 성벽 외곽에 파놓은 못 또는 물길로 적이 성벽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4, 『月城地表調査報告書』.

4)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査團, 1985, 『月城壕子 試掘調査報告書』.

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0, 『月城壕子 發掘調査報告書 I』.

6) -----, 2004, 『月城壕子 發掘調査報告書 II』.

7) 南天祐, 1989, 「仁旺洞 王城在城 半月城의 建造時期에 대하여」, 『歷史學報』123輯.

閔德植, 1990, 「新羅의 慶州 月城考」, 『東方學誌』60輯,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李相俊, 1997,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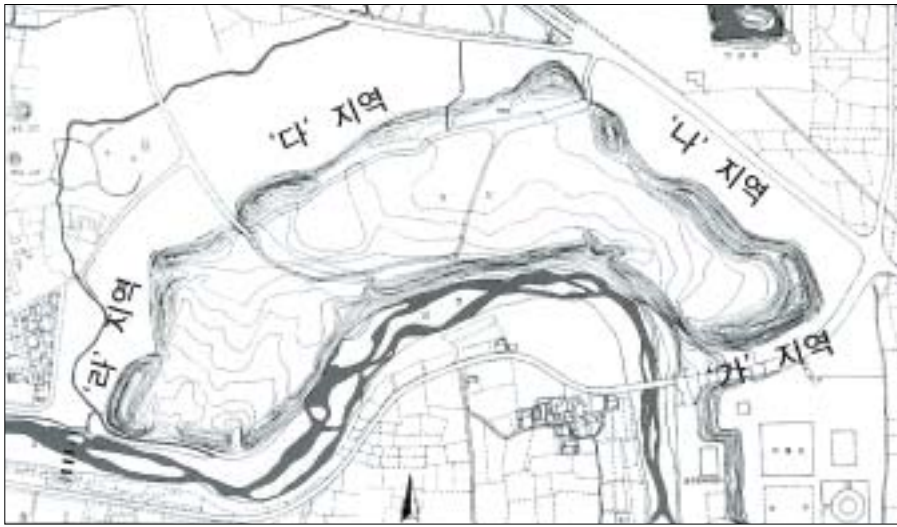


그림 1. 월성해자 지구분할

이를 경계로 공간을 구분하고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⁹⁾

조사결과 월성 주위의 해자는 3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 첫째, 월성남편을 만곡되게 흐르는 남천을 그대로 해자 시설로 이용한 자연해자
 - 둘째, 성벽 기저부를 따라 평면부정형의 못을 파고 냇돌로 호안을 구축한 연못형 해자
 - 셋째, 석축 시설을 별도로 마련해 만든 석축해자
- 이렇게 각 지역에 따라 해자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1985년에 시작된 1차년도 조사에서는 “나지역”의 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지역”은 독립된 연못형태의 석축해자로 「ㄱ」자 형태이다. 연못식 해자가 폐쇄된 후 그 상층에 축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해자는 원래 목적인 방어적인 목적을 상실한 조경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여기에 사용된 돌과 석축을 쌓은 방법은 인접한 안압지의 호안석축 쌓는 방법과 같은 것으로 다른 기초시설 없이 뿔층 위에 바로 쌓아 올림으로써 안압지를 조성하면서 함께 급히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8) 藤島亥治郎, 1930, 『朝鮮建築史論』.

閔德植, 1986, 「新羅王京의 都市設計와 運營에 관한 考察」, 『白山學報』 33輯.

----, 1987, 「新羅王京의 防備에 관한 考察」, 『史學研究』 39輯.

----, 1989, 「新羅王京의 都市計劃에 관한 試考」(上)(下), 『史叢』 35·36輯.

尹武炳, 1987, 「新羅의 坊制」, 斗溪 李丙霖博士 九旬紀念論叢.

----, 1972, 「歷史都市 慶州의 保存에 대한 調査」, 『文化財 保存에 관한 研究』.

朴方龍, 1985, 「新羅의 都城·城址」, 『韓國史論』 15輯, 國史編纂委員會.

金鎬祥, 1997, 「新羅 王京의 宮城址 研究 - 金城을 中心으로」,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9) 李相俊, 1997,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25.

1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0, 『月城核字 發掘調査報告書 I』.

그 후 1988년에 이루어진 3차년도 조사에서는 “다지역”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지역”은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출토된 유물양도 가장 많은 곳이다. 막새의 경우도 전체의 65% 이상이 “다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이 지역의 해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벽 기저부를 따라 평면부정형의 못을 파고 냇들로 호안을 구축한 연못형 해자로 2006년 현재도 발굴이 진행 중이다. “다지역”의 해자는 크게 하나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 높이 차이를 두고 각각 3개의 독립된 연못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지역”은 작은 면적이 조사되어 다른 지역처럼 해자로 생각되는 빨충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시굴조사 시 성벽에서 해자 안으로 토사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석축이 확인되어 “다지역”에도 해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좀 더 조사가 진행되면 확실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¹⁾

Ⅲ. 동범와 검토

1. 정의

본고에서는 그동안 동범와 판별의 위험성을 생각해 유사와(類似瓦), 동형와(同形瓦)등으로 기재되어 오던 용어를 특징적 요소들의 관찰을 통해 동범와(同范瓦)로 판별을 하고자 한다.

최근 보고서나 논문 등을 볼 때 동범와란 용어를 사용해 설명되어진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으나 동범와에 대한 검토나 요소들의 특징 등에 관해서는 설명되어지지 않은 채 동범와란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확실한 동범와에 대한 검증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고신라 막새를 대상으로 「동범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동범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동범와란 용어를 사용함에 「유사와」, 「동형와」등의 용어와 차별적으로 쓰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와범(瓦范)이란 암·수막새를 찍어내기 위해 원형(圓形)이나 장방형(長方形)으로 만든 제작틀을 지칭하며¹²⁾ 또한 동범와란 하나의 범에서 찍은 여러 점의 동일한 와(瓦)를 말한다. 여기서는 그 범위를 월성해자 출토 수막새로 한정하고자 한다. 동일한 문양의 막새이지만, 막새를 찍어 낸 범은 여러 개가 사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문양이라 해서 무조건 동범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 동일한 문양이라 해도 각 막새의 특징들을

11) -----, 1990, 『月城亥字 發掘調査報告書 I』.

12)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磚』-아름다운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 p.400.

파악해 동일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막새들만 동범으로 묶어야 정확한 동범의 막새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검토방법

동범외의 검토방법은 수막새에서 보이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했다. 막새의 문양 및 각 문양의 사이즈, 문양에서 확인되는 범에 의한 특징들, 수키와의 접합기법, 색상과 소성도 등의 요소들을 확인·검토하였다. 그러나 색상과 소성도는 범에서 막새가 제작된 이후에 나타나는 특성들이므로 다를 수 있음을 알려준다.

동범외 판별을 위한 검토방법은 다음의 순서와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다종의 수막새 중 동일한 문양의 것들을 모으고, 개별 사이즈를 계측하였다. 계측 부분은 전체지름 및 자방과 주연부 그리고 연자와 연잎의 크기, 특징적이라 생각되는 부분의 사이즈 등 필요한 작은 부분까지 계측하여 비교 자료로 이용하였다.

전체 사이즈는 고온, 저온소성 등 소성 시 차이로 인한 약간의 오차(0.1~0.4cm 범위)는 허용하였다.

둘째, 여러 부분의 계측치를 통해 동일형태의 수막새 중 동일 사이즈 수막새들을 선별하였다.

셋째, 앞의 과정을 통해 동일한 사이즈로 묶인 수막새들의 세부적 특징의 비교를 통해 동범외 요소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비교란 형태와 소성도, 접합기법은 물론 문양의 작은 부분의 특징까지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요소들 중 가장 확실하게 동범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외범의 혼이다. 즉 범상(范傷)으로서 외범은 석제, 목제, 도제 등의 재료를 사용해 제작되는데, 고신라에 주로 사용되는 외범의 재료는 목제¹³⁾로 처음 사용할 때와 다르게 여러 번 사용하다보면 범이 훼손되게 되는데, 외범의 혼은 이러한 훼손 흔적을 말한다. 이렇게 수막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동범외에 대한 판별을 하고자 한다.

IV. 월성해자 출토 동범외













13) 현재까지 목제 외범(木製瓦范)이 발견된 예는 없으며, 목제 외범이 사용되었을 수막새에 남아있는 목리흔(木理痕)을 통해 알 수 있다.

1. 동범와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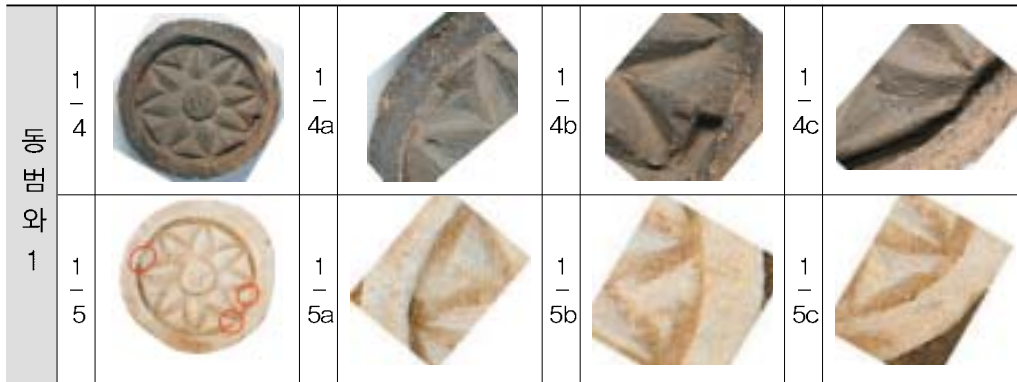
각 형식별로 외범의 흔, 문양의 특징, 각 부분의 사이즈 등을 통해 동범외로 확인된 월성 해자 출토 수막새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동범외 중 실견을 하지 못한 것은 와전도록¹⁴⁾에 실린 사진 자료만을 이용하여 정확한 계측치와 색상, 소성도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와전도록에서 인용한 사진은 번호 앞에 기호(*)를 이용해 표시하였으며, 기타 다른 유적지에서 출토되어 자료집 등을 통해 이용한 사진자료는 설명을 따로 기재하였다. 접합기법은 A형, B형, C형, D형의 4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지며, 접합기법이 제일 뚜렷이 확인되는 막새들을 선별해 도면으로 나타내었다<그림 2>.

- A형 : 분할절지법으로 주연까지 완성된 막새 배면에 원통으로 분리되지 않은 통기와를 접합한 후 필요없는 1/2을 잘라내는 형태.
 - B형 : 수키와 부분을 그대로 막새의 주연부 상단으로 사용하고, 보토(補土)를 한 형태.
 - C형 : 수키와 부분을 막새의 주연부 일부로 사용하고, 보토(補土)를 한 형태.
 - D형 : 수키와 부분을 그대로 막새의 주연부 상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상·하단 주연부에 다시 점토를 붙여 고(高) 주연으로 제작하고 보토(補土)를 한 형태.
- 소성도는 경질과 연질에 각각 상(上)·중(中)·하(下)를 두어 세분하였다.

동범 예 1.

동 범 외 1	1 - 1		1 - 1a		1 - 1b		1 - 1c	
	1 - 2		1 - 2a		1 - 2b		1 - 2c	
	1 - 3		1 - 3a		1 - 3b		1 - 3c	

14)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博』-아름다운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 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1	1-1	회흑색 경질(上)	17.2	3.7	1.0	1+5	2.5	1.2	2.9	B	월성 해자	다2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분의 사이즈 • 자방의 연자 형태 및 위치 • 세곳의 와범흔의 특징적인 형태 • 접합기법
	1-2	회흑색 경질(上)	17.0	3.7	0.8	1+5	2.1	1.2	3.6	B	월성 해자	다260.0	
	1-3	회흑색 경질(上)	16.8	3.7	0.8	1+5	2.4	1.2	3.35	B	월성 해자	다270.0	
	1-4	황회색 경질(中)	16.4	3.75	0.9	1+5	2.0	1.4	3.1	B	월성 해자	라150W10	
	1-5	연회색	-	-	-	1+5	-	-	-	B	나정	-	

동범와 1은 연잎이 뾰족한 형태의 막새로 고구려계통이라고 생각되는 막새이다. 이 형태의 막새는 현재까지 월성해자와 나정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연잎의 구도형태, 태토, 소성상태 등으로 볼 때 황룡사지의 창건기와로 추정¹⁵⁾되는 고구려계의 막새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범와의 요소는 우선 연자의 동일한 위치 상태이다. 1+5과(顛)의 연자의 배치형태가 동일하며, 범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세 곳의 흔적, 즉 삼각형 사이잇과 주연부가 이어진 형태가 세 곳에서 동일하다. 크기도 2.4cm <사진 1-1a, 1-2a, 1-3a, 1-4a>, 1.9cm <사진 1-1b, 1-2b, 1-3b, 1-4b>, 1.0cm <사진 1-1c, 1-2c, 1-3c, 1-4c>로 각각 동일하다.

<사진 1-5>는 나정 출토품으로 지도위원회에서 소개된 자료이다.¹⁶⁾

15) 申昌秀, 1986, 「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의 編年」,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6) 中央文化財研究院 · 慶州市, 2005, 「慶州 羅井」 -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동범 예 2.



동범외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외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외 2	2-1	회흑색 경질(上)	16.0	3.2	0.7	1+4	17	1.3	2.8	B	월성 해자	다230N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연자형태 및 위치 • 거꾸로배치된 연잎 • 작은 사이잎 • 접합기법
	2-2	회흑색 경질(上)	16.3	-	-	1+4	-	-	-	B	월성 해자	다300N20	
	2-3	회흑색 경질(上)	-	-	-	1+4	-	-	-	B	나정	-	
	2-4	회갈색 경질(中)	-	-	-	1+4	-	-	-	B	나정	-	
	2-5	회갈색 경질(中)	-	-	-	1+4	-	-	-	B	나정	-	


동범와 2도 연잎이 뾰족한 형태의 막새로 고구려계통이라고 생각되는 막새이다. 동범와 1과 문양형태가 유사하나, 8개의 연잎 중 1엽이 거꾸로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 막새 또한 현재 월성해자와 나정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동범와 1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정 출토 막새 3점은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계측치를 알 수 없으나, 사진을 통한 문양면의 특징들을 통해 동범와로 묶어놓았다. 후에 계측치가 확인된다면 월성해자 출토 막새와 거의 동일한 계측치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동범와의 요소는 지방의 동일한 연자 위치, 거꾸로 된 잎의 크기 및 형태와 이 잎의 배치 형태로 인한 공간의 부족으로 유난히 작게 표현된 사이잎의 형태이다.

〈사진 2-3, 2-4, 2-5〉는 나정출토품으로 지도위원회에서 소개된 자료이다.

동범 와 예 3.

동범와 3	3-1		3-1a		3-1b	-	3-1c	
	* 3-2		3-2a		3-2b		3-2c	
	* 3-3		3-3a		3-3b		3-3c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3	3-1	회청색 경질(上)	14.8	3.3	0.3	1+8	1.5	1.3	2.4	A	월성 해자	다4100	• 각부분의 사이즈 • 지방의 연지형태 및 위치 • 외범의 혼 • 접합기법
	3-2	회흑색 연질(上)	14.3	-	-	1+8	-	-	-	A	월성 해자	-	
	3-3	회백색 연질(中)	14.5	-	-	1+8	-	-	-	A	월성 해자	다4200	










동범와 3은 백제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막새로 연잎에 볼륨감을 주어 매우 부드럽게 용기되었으며, 연잎 끝에 원형돌기를 배치해 볼륨감을 한층 더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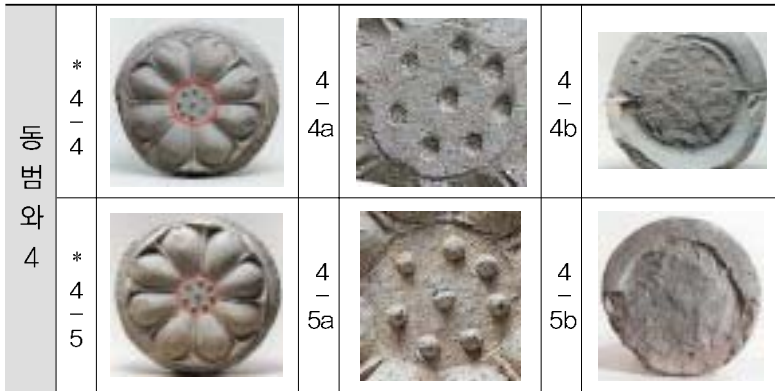
이 막새의 동범 요소는 지방에 배치된 연자의 위치와 와범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한 곳의 흔적이다. 3-1의 막새에서는 와범에 의한 상처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모든 부분의 계측치와 연자의 동일한 형태를 통해 동범와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범와 임에도 불구하고 와범의 상처의 유무는 시간적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목제 와범이므로 오랜 기간 많은 수의 막새를 찍어내다 보면 목제 와범의 훼손현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범상(范傷)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나타나는 것보다 앞선 시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개의 동범의 막새는 색상의 차이가 매우 뚜렷한데, 이것은 소성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3-1, 3-2, 3-3의 순으로 경도가 낮아지는데, 3-1은 단단한 경질로써 너무 고온에서 소성되었기 때문에 주연부의 중앙에 터진 흔적 확인된다. 3-2는 연질에 가까운 경질로써 연한 회색빛을 띠며, 3-3의 막새는 연질로써 회백색을 띠고 있어 가장 낮은 온도에서 소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요소들을 갖고 있는 동범와이지만, 소성의 차이로 인해 색상, 계측치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접합기법을 보면 원통형의 통기와를 드림부 배면에 접한 후 1/2를 자른 분할절지법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백제 한성기 막새에 주로 사용되는 접합기법으로써 신라시대에는 초기 백제계 형태의 막새에 사용되다가 신라계 막새형태가 정착되면서부터는 사용되지 않는 접합기법이다.

동범 예 4.

동 범 와 4	4 - 1		4 - 1a		4 - 1b	
	4 - 2		4 - 2a		4 - 2b	
	* 4 - 3		4 - 3a		4 - 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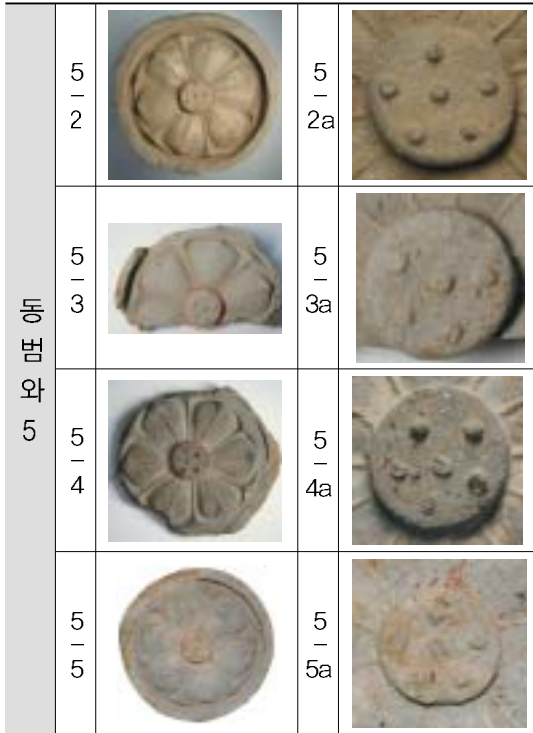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 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4	4-1	회청색 경질(中)	15.0	1.4	-	1+7	1.1	1.6	2.8	A	월성 해자	다370N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분의 사이즈 • 자방의 연자형태 및 위치 • 접합기법
	4-2	회백색 연질(中)	15.9	3.4	-	1+7	1.3	2.0	2.4	A	월성 해자	다4200	
	4-3	회청색 경질(中)	14.2 (잔)	-	-	1+7	-	-	-	A	월성 해자	다4200	
	4-4	회청색 경질(中)	15.0 (잔)	-	-	1+7	-	-	-	A	월성 해자	다4100	
	4-5	회백색 경질(中)	14.5 (잔)	-	-	1+7	-	-	-	A	월성 해자	다4100	

동범와 4는 동범와 3과 마찬가지로 백제계의 영향을 많이 갖고 있는 형태로 부드럽게 용기된 연잎과 그 끝에 배치된 작은 원형돌기는 백제계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내면으로 들어가 배치된 자방은 연잎의 볼륨감을 한층 더해주는 역할을 하며, 거기에 배치된 동일한 위치의 1+7과(顚)의 연자가 동범와 판별의 기준이 된다. 접합기법 또한 A형인 분할절지법이 사용되었다(사진 4-1b, 4-2b, 4-3b, 4-4b, 4-5b).

동범와 예 5.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5	5-1	회갈색 경질(上)	16.0	3.7	0.85	1+5	1.1	1.5	2.4	-	월성 해자	다480N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부분의사이즈 • 자방의 연자형태 및 위치 • 접합기법
	5-2	연갈색 경질(上)	15.9	3.5	0.7	1+5	1.4	1.5	2.1	-	월성 해자	리60N10	
	5-3	회백색 연질(中)	16.4	3.6	0.8	1+5	0.7	1.3	2.7	B	월성 해자	다200N25	
	5-4	회갈색 경질(中)	13.4 (잔)	3.4	0.8	1+5	0.8	-	2.6	B	월성 해자	다420N10	
	5-5	회백색 연질(中)	-	-	-	1+5	-	-	-	-	나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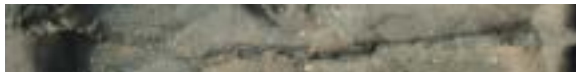
동범와 5는 전형적인 고신라계 막새로 연잎 중앙에 능선이 뚜렷하며, 넓게 펼쳐진 연잎은 적당한 볼륨감으로 입체감을 주었고 연잎끝단에 돌기 대신 앞이 살짝 들려진 형태로 반전시켜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동범와 요소는 돌출된 자방에 배치된 1+5과(顆)의 연자의 위치와 각 부분의 계측치의 동일함이다. 이 막새는 고신라 막새의 기본인 6엽의 배치와 연잎 중앙에 배치된 능선, 균형

맞는 적당한 크기의 돌출된 자방은 전형적인 고신라계 막새의 형태를 보여준다.

〈사진 5-5〉는 나정출토품으로 지도위원회에 소개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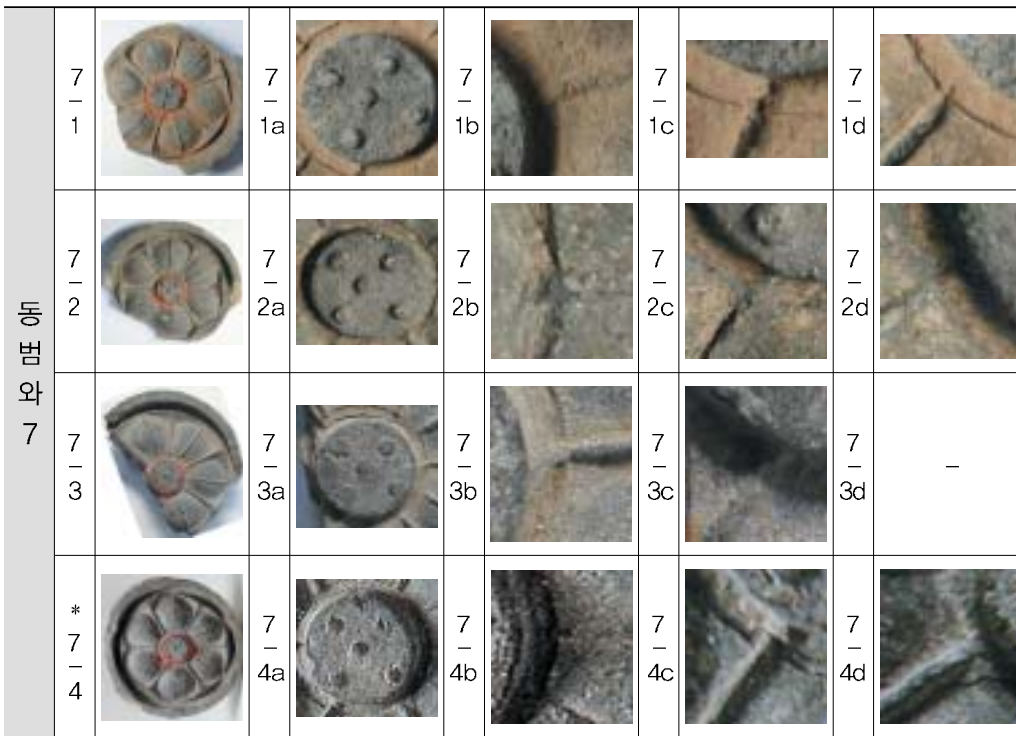
동범 예 6.

동범와 6	6-1		6-1a	
	6-2		6-2a	
	6-3		6-3a	
	6-4		6-4a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6	6-1	적갈색 경질(中)	14.8	2.5	0.9	-	1.1	1.2	3.65	B	월성 해자	대260N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분의 사이즈 • 외범틀에서 찍혀 나온막새를 가로 지르는 1줄의 세 선 • 접합기법
	6-2	적갈색 경질(中)	13.4 (잔)	2.5	0.8	-	-	-	3.3	B	월성 해자	대240S10	
	6-3	적갈색 경질(下)	14.1 (잔)	2.45	1.1	-	1.1	1.2	3.4	B	월성 해자	대171S35	
	6-4	회청색 경질(中)	15.7	2.6	1.1	1+5	1.2	1.2	2.6	-	월성 해자	대120S10	

동범와 6은 동범와 판별을 할 시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형태이다. 목재 와범이 갈라진 틈으로 점토가 넣어져 생긴 것이라 추정되는 1줄의 선이 막새를 지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선이 나타나는 막새는 월성해자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세선이 나타나는 다른 1종의 막새 또한 월성해자에서 출토되는데 형태는 막새의 자방을 지나 일직선으로 중심을 지나는 형태이다(사진 1 참고).

동범 예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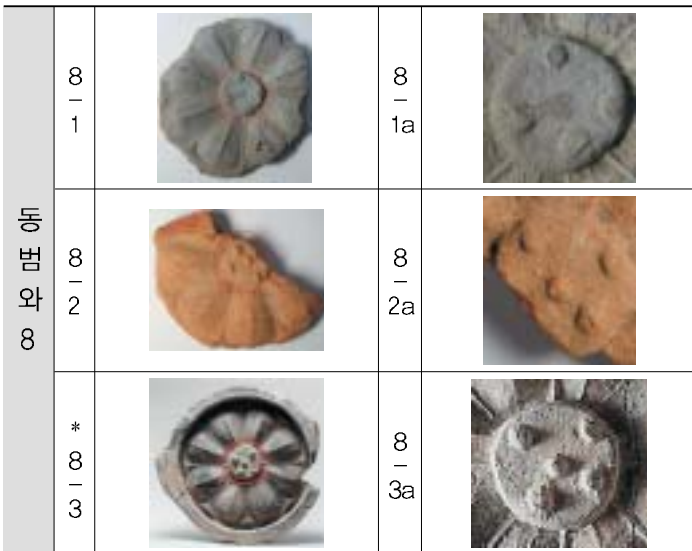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 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7	7-1	회색 연질(↓)	16.0	3.4	0.9	1+4	1.1	1.0	2.4	B	월성해자	대450N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부분의 사이즈 • 자방의 연지형태 및 위치 • 간잎 끝 두부분과 연잎 능선 끝 한부분의 특징적 형태
	7-2	회색 연질(↓)	15.9	3.4	0.9	1+4	1.0	1.2	2.3	B	월성해자	대470N80	
	7-3	회청색 경질(中)	16.0 (추)	3.4	0.7	1+4	1.0	1.1	2.2	C	월성해자	대100S20	
	7-4	회청색 경질(?)	15.8	-	-	1+4	-	-	-	B	월성해자	대40E10	

동범와 7은 6엽의 넓고 둥근 연잎이 균형 있게 배치되고, 중앙에 큼직한 평면의 지방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준다. 지방과 연잎 사이에 홈을 배치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형태는 전형적인 고신라계 연화문 수막새가 자리잡고, 약간씩의 문양 변화를 보여주는 형태로 전형적인 형태에서 장식되고, 변화되어지는 문양의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동범와의 요소는 동일한 연자의 위치와 지방 둘레에 배치된 홈에 사이잎의 끝 부분이 홈의 안쪽까지 뺀어 나와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형태는 모두 세 곳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형태로 확인된다.

동범 예 8.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 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8	8-1	회흑색 연질(上)	13.0 (잔)	3.4	Q6	1+4	-	-	2.3	-	월성해자	내50W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분의 사이즈 • 지방의 연자 형태 및 위치 • 연잎의 부분적 형태
	8-2	적갈색 연질(下)	13.2 (잔)	3.2	Q7	1+4	-	-	2.1	-	월성해자	내50E0	
	8-3	회색 연질(?)	16.3	-	-	1+4	-	-	-	-	안압지	-	

동범와 8은 연잎의 수가 늘어나 넓었던 연잎의 폭이 줄어들고 길쭉해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약간씩 형태를 다르게 하여 여러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는 형태로 월성해자를 비롯해 안압지, 황룡사지, 전랑지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동범와의 요소는 돌출된 자방에 배치된 1+4과(顆)의 연자의 위치와 각 부분의 계측치의 동일함인데, 연자의 간격이 일정치 않음이 동범와를 판별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된다.

동범 예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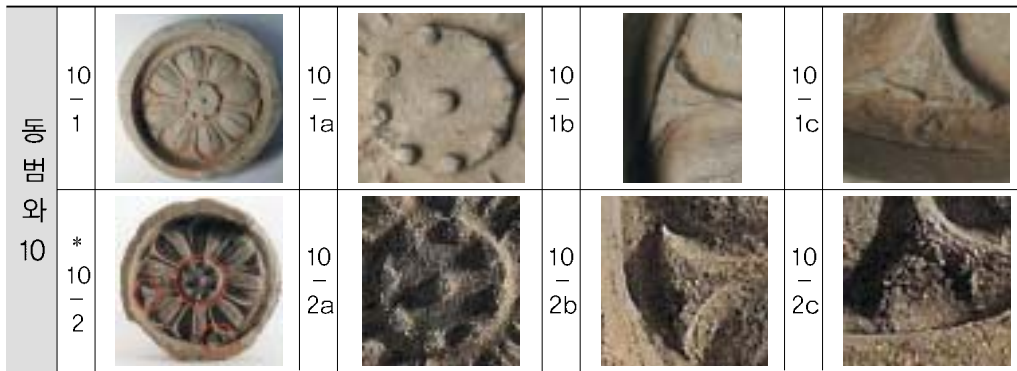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9	9-1	회청색 연질(下)	15.4	3.8	0.9	1+4	1.1	1.1	2.5	C	월성해자	내170W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분의 사이즈 • 자방의 연자형태 및 위치 • 와범의 흔 • 접합기법
	9-2	회색 연질(中)	16.2	3.9	1.1	1+4	1.0	0.9	2.8	-	월성해자	대147S33	
	9-3	회청색 경질(下)	16.0	3.6	0.5	1+4	1.3	1.0	2.4	C	월성해자	북쪽 1차 석축해자 서면	
	9-4	연회색 연질(中)	15.6	3.8	1.0	1+4	1.1	1.1	2.5	C	월성해자	대162S4	

동범와 9는 동범와 8과 형태가 거의 유사하나, 자방의 연자의 위치와 전체 계측치가 다르다. 역시 연잎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잎의 형태가 약간 길쭉한 형태이다.

동범와의 요소는 돌출된 자방에 배치된 1+4과(顛)의 연자의 위치와 범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한 곳의 흔적, 즉 사이잎과 주연부가 이어진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9-3의 막새는 문양을 찍은 후 손으로 문양을 납작하게 눌러 지워 자방의 연자가 없으며 다른 막새에 비해 문양의 볼륨이 낮으나, 각 부분의 계측치와 와범의 흔적이 동일하게 나타나 동범임이 확인된 막새이다.

동범 예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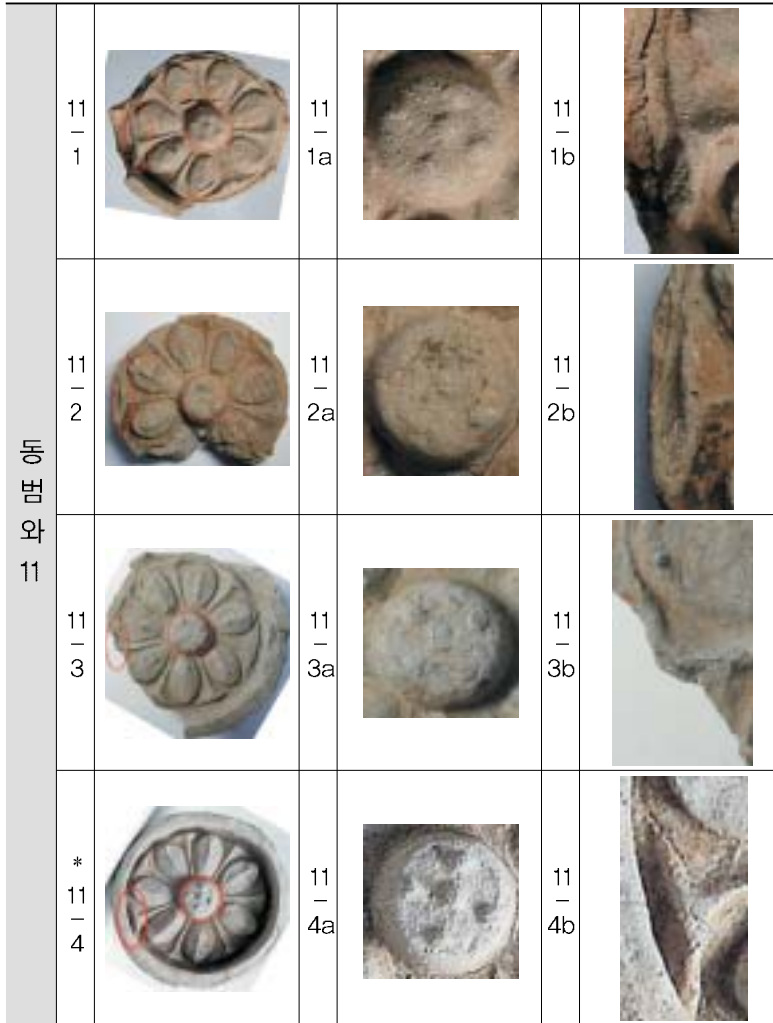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10	10-1	회색 경질(下)	14.4	3.7	0.7	1+8	1.1	2.2	1.7	D	월성 해자	다48CN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분의 사이즈 • 자방의 연자형태 및 위치 • 사이잎 크기 • 사이잎의 와범흔
	10-2	암회색 경질(-)	14.4	-	-	1+8	-	-	-	-	황룡 사지	-	

동범와 10은 자방의 연자가 매우 특색있게 배치된 형태로 돌출된 자방의 가장자리에 8과(顛)의 연자가 배치되었다. 연잎은 약간 좁고 긴 형태로 가운데 능선이 매우 뚜렷하며, 주연부를 매우 높게 제작하였다. 동범와 8·9와 연잎의 형태는 유사하나, 자방에 연자를 다수 배치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전형적인 신라계막새의 형태에서 연잎과 함께 자방의 연자 또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범 요소는 자방에 배치된 연자의 형태와 동일한 위치이며, 사이잎의 형태가 각각 다른데 그 중 하나의 사이잎이 다른 사이잎에 비해 넓고, 좁아져 내려오는 부분이 날카롭지 못하다. 또 다른 사이잎의 윗 부분에는 와범에 의해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 작은 세 개의 세선이 나타난다.

동범 예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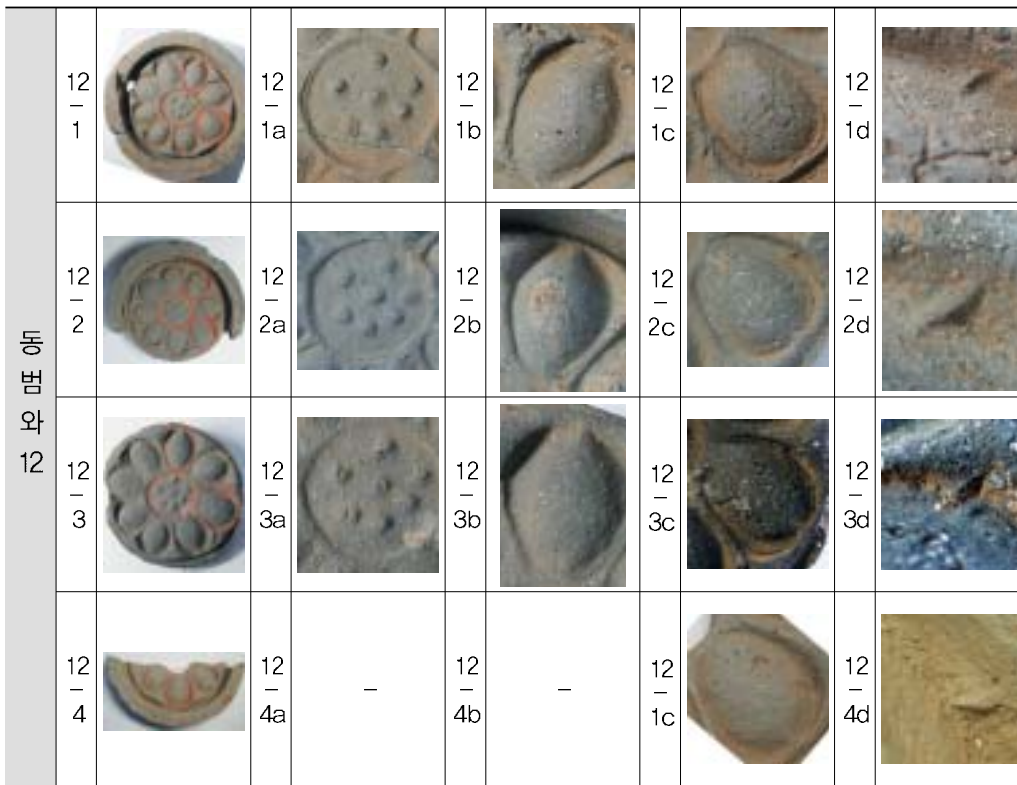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 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두께				
			지름	높이	연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11	11-1	황적색 연질(下)	14.2 (잔)	3.7	1.3	1+4	1.0	2.3	3.4	B	월성해자	다470N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분의 사이즈 • 자방의 연자형태 및 위치 • 사이일 형태 • 접합기법
	11-2	황적색 연질(下)	13.3 (잔)	3.7	1.3	1+4	-	-	3.1	B	월성해자	대180N70	
	11-3	회색 연질(中)	15.5	3.6	1.2	1+4	1.3	2.3	2.6	B	월성해자	다420N20	
	11-4	회색 연질(-)	16.1	-	1.0	1+4	-	-	-	B	월성해자	-	

동범와 11은 세장방형한 연잎의 끝단을 약간 들어 반전시킴으로써 연잎의 볼륨감을 주었으며, 연잎에 비해 지방의 양감이 매우 크다.

동범와의 요소는 크게 돌출된 지방에 배치된 연자의 위치와 7개의 사이잎 중 한 개의 사이잎이 주연부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범 예 12.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 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12	12-1	회청색 경질(中)	15.2	3.7	-	1+6	1.4	1.8	3.1	B	월성해자	다470N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분의 사이즈 • 지방의 연자 형태 및 위치 • 연잎의 각각의 사이즈와 형태 • 연잎 한 부분에서 보이는 작고 긴 돌기
	12-2	회청색 경질(中)	15.3	3.7	-	1+6	1.4	2.0	3.5	B	월성해자	다480N70	
	12-3	회청색 경질(中)	11.4 (잔)	3.7	-	1+6	-	-	2.8	B	월성해자	다480N70	
	12-4	회색 연질(上)	14.9 (잔)	-	-	1+6	1.4	1.6	2.0	-	월성해자	다460N70	

동범와 12는 양감이 전혀 없는 평면적인 자방을 배치하고, 자방에 비해 작고 동그란 계란 형의 연잎을 배치했다. 자방과 연잎의 양감에 비해 삼각형의 사이잎의 양감을 매우 강하게 제작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었다. 또한 주연부를 보통 1.0~1.5cm 로 제작하는 것과 달리 2.0cm정도로 높이 제작한 점도 특이하다.

동범와의 요소는 평면 자방에 배치된 연자의 동일한 위치 상태와 연잎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잎의 형태를 보면 8잎의 연잎 중 한 개의 잎은 다른 잎에 비해 폭이 좁고 긴 형태이며<사진 12-1b, 12-2b, 12-3b, 12-4b> 다른 한 잎은 넓은 모습으로 <사진 12-1c, 12-2c, 12-3c 12-5c> 크기와 위치도 각각 동일하다. 또한 넓은 잎 한쪽에 작고 길쭉한 돌기<사진 12-1d, 12-2d, 12-3d, 12-5d>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의도된 문양은 아니고 범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동범 예 13.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13	13-1	회색 연질(下)	14.4	3.8	-	1+8	1.3	1.3	2.9	-	일성해자	다280S10	•각 부분의 사이즈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13	13-2	회색 연질(上)	10.6 (잔)	4.1	-	1+8	0.9	1.2	2.3	-	월성 해자	다200N70	•자방의 연자 형태 및 위치
	13-3	회청색 경질(中)	14.1	4.0	-	1+8	1.6	1.6	2.5	-	월성 해자	내140W50	
	13-4	회청색 경질(-)	12.4 (잔)	-	-	1+8	-	-	-	-	안압 지	-	

동범와 13은 전체적으로 불륨감이 없는 형태로 연잎과 연자수가 늘어나고 장식적인 효과를 더한 형태의 막새이다. 연잎은 계란형의 동그란 형태로 10잎이 배치되고, 평면적인 자방에는 방사선문을 장식해 그 사이에 8과(顰)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사이일도 삼각형의 사이일에서 가운데에 빈 공간을 둔 “Y”자형 사이일을 장식하여 화려해지는 단판연화문 막새의 형식을 볼 수 있는 막새이다.

동범의 요소는 자방에 배치된 방사선문과 그 사이의 연자의 위치이다.

동범 예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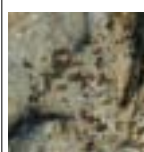


동범와 예 14	14-1		14-1a		14-1b	
	14-2		14-2a		14-2b	
	* 14-3		14-3a		14-3b	
	* 14-4		14-4a		14-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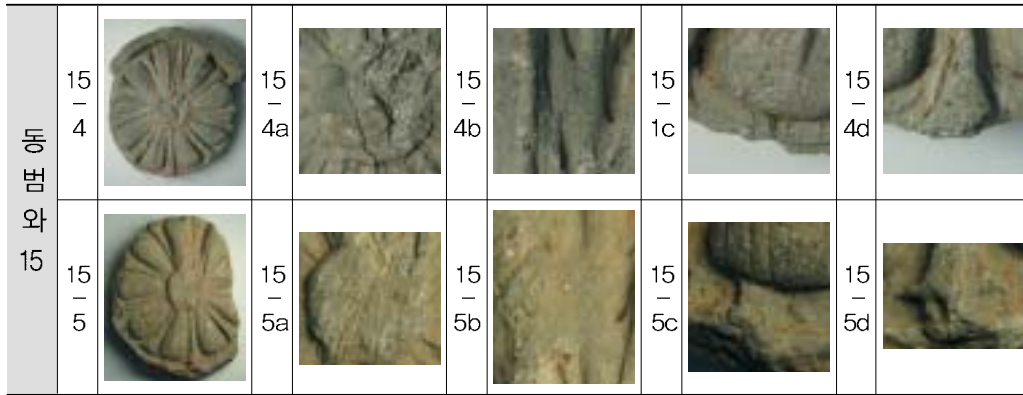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14	14-1	회청색 경질(±)	13.4 (잔)	3.5	0.5	1+4	-	-	2.8	B	월성 해자	대240N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분의 사이즈 •자방의 연자 형태 및 위치 •연잎의배치 •접합기법
	14-2	암회색 경질(中)	13.0 (잔)	3.0	0.4	1+4	1.0	0.7	2.2	B	월성 해자	대136S31	
	14-3	회청색 경질(-)	14.4	-	-	1+4	-	-	-	B (추)	안압 지	-	
	14-4	회청색 경질(-)	12.0 (잔)	-	-	1+4	-	-	-	-	영묘 사지	-	

동범와 14는 세장방형의 연잎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연잎이 불규칙함에 따라 삼각형의 사이잎 역시 불규칙하다. 연잎은 양감을 주었으나 반전이나 능선이 없어 입체감이 떨어진다. 그 중 <사진 13-2> 막새는 문양을 찍은 후 손으로 문양의 양감을 모두 눌러 납작하게 제작한 것이 특징으로 막새 전면에 지두흔이 매우 뚜렷히 남아있다.

동범와의 요소는 불규칙하게 배치된 연잎의 형태와 사이잎의 각기 다른 형태인데, 불규칙한 연잎 중 2개의 잎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삼각형의 사이잎 중 하나의 사이잎은 유난히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이다.

동범 예 15.

동 범 와 15	15-1		15-1a		15-1b		15-1c		15-1d	
	15-2		15-2a		15-2b		15-2c		15-2d	
	15-3		15-3a		15-3b		15-3c		15-3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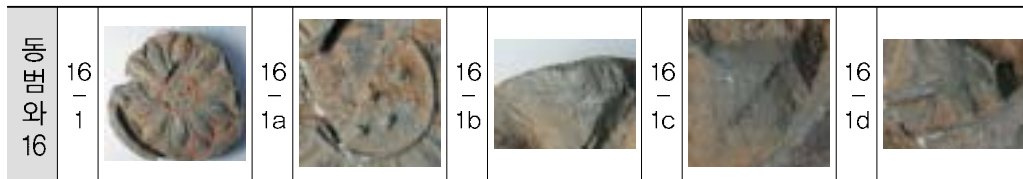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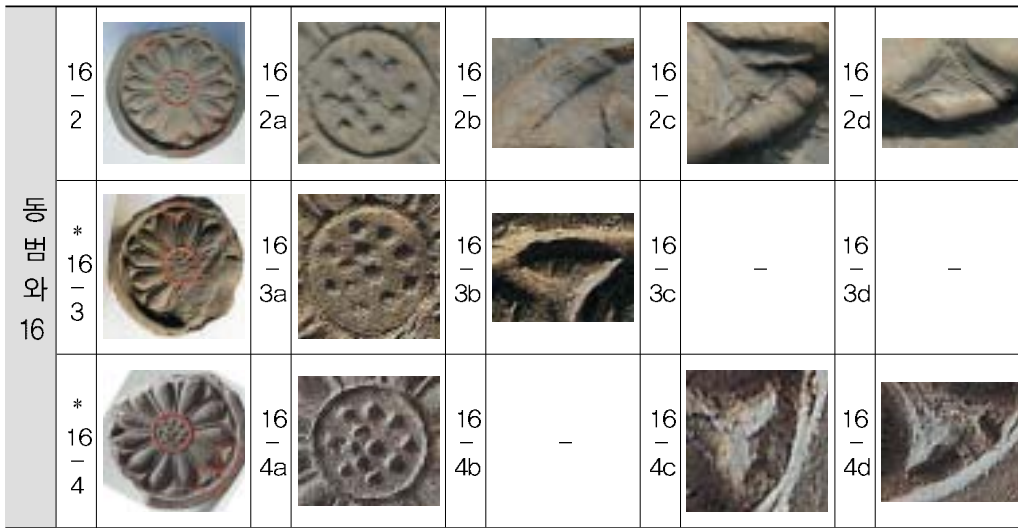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 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	폭	높이	두께				
동범와 15	15-1	적갈색 연질(上)	14.3 (잔)	3.6	0.7	1+6	1.2	1.2	2.3	B	월성 해자	대160S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분의 사이즈 • 지방의 연자 형태 및 위치 • 세 부분의 외범 혼 • 접합기법
	15-2	적갈색 경질(下)	11.6 (잔)	3.4	0.7	1+6	-	-	2.4	B	월성 해자	나160W50	
	15-3	회청색 연질(上)	13.2 (잔)	3.5	0.7	1+6	1.1	1.1	2.9	B	월성 해자	석죽해자 서편	
	15-4	회청색 연질(上)	13.1 (잔)	3.4	0.6	1+6	1.1	1.1	2.7	B	월성 해자	대136S22	
	15-5	회청색 연질(上)	12.4 (잔)	3.4	0.4	1+6	-	-	3.1	B	월성 해자	표토	

동범와 15는 세장한 장방형에 가까운 연잎을 배치한 형태로 연잎의 볼륨은 크지 않으나 능선을 배치해 양감을 더했다. 이 막새는 동범와의 요소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로 범(范)에 의해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 범의 흔적이 막새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동범와 15의 막새들을 제작할 당시에 목재외범은 이미 많은 사용으로 훼손이 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동범와의 요소는 지방의 연자의 동일한 위치와 5부분에서 확인되는 외범의 흔적으로 이러한 훼손 흔적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문양의 형태가 뚜렷이 찍혀 나오지 못했다.

동범 예 16.





동범와 번호	사진 번호	색상 및 소성도	크 기 (cm)							접합 기법	출토 유적	출토위치	동범와 요소
			지름	자 방			주 연						
				지름	높이	연자수	폭	높이	두께				
동범와 16	16-1	회청색 경질(中)	14.8	3.8	-	12	1.1	1.2	1.3	B	월성 해자	대330N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분의 사이즈 • 자방의 연자형태 및 위치 • 사이일 세곳의 와 범흔 • 접합기법
	16-2	회청색 경질(中)	14.6	3.9	-	12	1.0	1.1	2.5	B	월성 해자	대150N80	
	16-3	회청색 경질(-)	14.0 (잔)	-	-	12	-	-	-	-	인압 지	-	
	16-4	회색 연질(-)	15.2	-	-	12	-	-	-	-	재매 정지	-	

동범와 16은 연잎을 11개 배치함으로써 연잎이 길쭉한 형태로 매우 세장하며, 연잎의 끝단에는 작은 원형돌기를 배치해 양감을 살렸다. 자방은 내면으로 들어가 배치된 형태로 12과(顆)의 연자를 불규칙하게 배치하였다.

동범와의 요소는 불규칙하나 동일한 위치에 배치된 연자와 3곳의 범에 의한 흔적이다. 3곳 모두 사이일 끝이 주연부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제 와범을 오래 사용하면서 훼손된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2. 동범와의 지역별 출토양상

앞에서는 월성해자 출토 막새들의 특징들을 확인해 비교하여 「동범와」에 대한 판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판별을 통해 묶여진 동범와들의 출토위치를 확인하여 월성해자에서의 출토양상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동범와로 묶여진 막새들의 출토위치를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출토위치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월성해자는 남쪽의 문천을 제외하고 동쪽부터가, 나, 다, 라 지역으로 나누어 발굴이 진행 중이다. 나지역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네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인 다지역은 현재도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동범와1 - 동범와16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막새는 나·다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여기서는 동범와로 묶인 막새들의 출토위치를 통해 월성해자의 지역별 출토양상과 동범와의 시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림 2〉는 각 동범와별 출토위치를 파악해 도면에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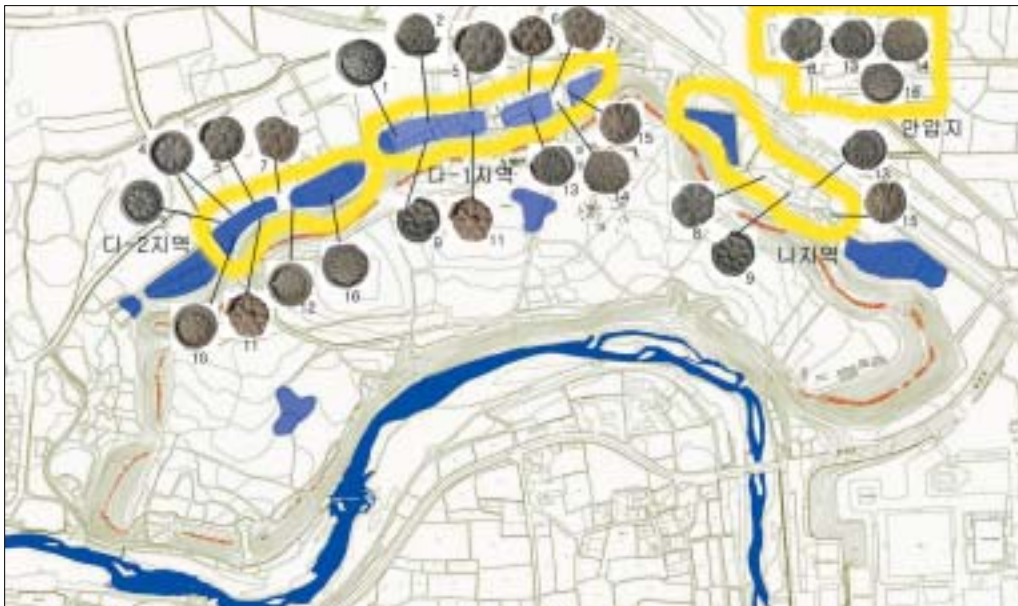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동범와 출토 분포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범와 출토지의 대부분이 주로 나지역과 다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다지역은 광범위하여 다-1지역과 다-2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지역에서는 동범와8, 동범와9, 동범와13, 동범와15가 출토되었고, 다-1지역에서는 동범와1, 동범와2, 동범와5, 동범와6, 동범와7, 동범와9, 동범와11, 동범와13, 동범와14, 동범와15의 다양한 형식의 동범와가 출토되었으며, 다-2지역에서는 동범와3, 동범와4, 동범와5, 동범와7, 동범와10, 동범와11, 동범와12, 동범와16이 출토되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안압지

에서는 동범와8, 동범와13, 동범와14, 동범와16이 출토되었으며, 기타 나정 및 영묘사 등의 지역에서도 한, 두종류의 동범와가 출토되었으나, 도면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동범와를 통해 본 월성해자 및 주변유적의 동범출토 비교

동범와 출토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나 지역								○	○				○		○	
다-1지역	○	○			○	○	○		○		○		○	○	○	
다-2지역			○	○			○	○		○	○	○				○
안 압 지													○	○		○
나 정	○	○			○											
황룡사지										○						
영묘사지														○		
재매정지																○

다지역을 보면 동범와 중 고신라의 것이라고 판단되는 동범와1을 비롯하여 동범와7번까지의 막새가 출토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출토되지 않는 이른 형식의 이러한 막새가 다지역에서만 출토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지역의 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막새의 출토 층위가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계 형식의 막새인 동범와1·2는 다-1지역에서 출토되며, 백제계 형식의 막새인 동범와3·4는 다-2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두 계통의 막새가 각각 지역구분이 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지역에서는 동범와1부터 동범와7까지의 막새형식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출토되는 막새들도 확인되고 있어 나지역과 안압지에 비해 다지역이 빠른 시기의 해자라는 것에 혼란을 주고 있다.

다지역은 성벽 기저부를 따라 평면부정형의 못을 파고 넷돌로 호안을 구축한 연못형 해자가 있던 곳이다. 이 해자는 월성이 대규모 수증(修葺)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자비마립간 18년(457)부터 삼국통일 이후 대대적인 궁궐의 2차 중수(重修)가 이루어진 문무왕 19년(679)까지¹⁷⁾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이 해자는 왕경 내에서도 치소(治所)와 일반지역을 차단하여 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효과와 외부로부터 적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¹⁸⁾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후에는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어 왕경에 대규모

17) 李相俊, 1997,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8) 李相俊, 1997,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토목사업을 펼쳤던 문무왕 19년(679)에는 메워지고 그 위에 대규모의 회랑식 건물들이 들어 서게 된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 변해 온 다지역을 본다면 동범와1~동범와6까지는 고신라에 해당되는 막새로 연못형 해자가 존재할 때 제작되어 사용되던 막새이며, 동범와 9, 10, 11, 12, 13, 14, 15, 16은 통일 이후 해자가 메워진 후 그 위에 세워진 회랑식 건물에 사용되었던 막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막새는 나지역과 안압지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다.

나지역은 석축시설을 별도로 마련해 만든 석축해자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동쪽으로는 출입시설을 비롯해 석열과 수혈 등이 존재하고 있다. 석축해자와 이러한 유구들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석축해자는 안압지를 축조하면서 함께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압지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 14년(674)에 완공¹⁹⁾된 곳으로 동궁(東宮)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연못으로 1975년 시작된 발굴을 통하여 출토된 수많은 유물들은 통일신라의 화려했던 문화를 보여준다. 와전류 중 “조로 2년명(調露二年名)” 보상화문전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전의 제작연대가 문무왕 20년(680)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문헌기록의 내용을 확인시켜주며, 편년에도 기준이 되고 있다.

나지역에는 안압지가 축조되기 이전에는 연못형 해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안압지를 조성하면서 이 지역만 연못형 해자를 개축하여 안압지와 같은 스타일의 석축해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안압지 조성과 함께 주변경관에 많은 배려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지역에서 출토된 막새의 문양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과 동범으로 제작되었던 것이 많아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공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곳에서 출토된 동범와는 8, 9, 13, 15번의 동범와로 이 중 8, 13동범와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과 동범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나지역 출토 막새는 통일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아직 월성해자의 ‘가’ 지역, ‘리’ 지역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후에 두 지역의 발굴 조사로 많은 자료들이 축적된다면 월성해자 전체의 시기적 구분이 막새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월성해자 막새가 신라초기의 형태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월성해자 출토 막새를 통해 신라전체의 막새 형태적 변화와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9) 二月 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奇獸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十四年條).

V. 맺음말

이상으로 월성해자 유적에서 출토된 단판연화문 수막새를 대상으로 동범와에 관한 판별을 시도하고, 묶여진 동범와의 출토위치를 통하여 월성해자의 시기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범와에 대한 판별 방법에 대한 제시이다. 그동안은 동형와, 유사와 등으로만 기재되거나, 동범와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동범의 정확한 검증이나 판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를 문양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소들과 계측치를 통해 동범와에 대한 판별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동범에서 찍어낸 막새는 문양의 세부적 형태와 계측치, 접합기법 또한 동일하였으며, 출토위치도 비슷하게 묶이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동범와의 출토양상을 통해 월성해자의 지역적 시기구분을 시도하였다. 다지역은 나지역에 비해 고식막새가 출토되어 해자 축조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생각되며, 해자가 메워진 이후에는 통일기 형식의 막새가 출토된다. 이때는 나지역과 같은 형식의 막새가 출토된다. 나지역의 석축해자와 기타 수혈들은 안압지와 형식이 같은 막새가 출토됨으로써 안압지를 조성할 시 함께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출토된 와전류에 비하면 월성해자 출토 단판연화문에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비교한 시도에 불과하며, 동범와의 판별에서도 주관적 판단에 치우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한계점과 실견하지 못한 유물의 정확한 계측치나 출토위치의 확인 부족 등은 이 논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 월성해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월성 내부의 발굴이 이루어져 많은 자료들이 축적된다면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기초자료로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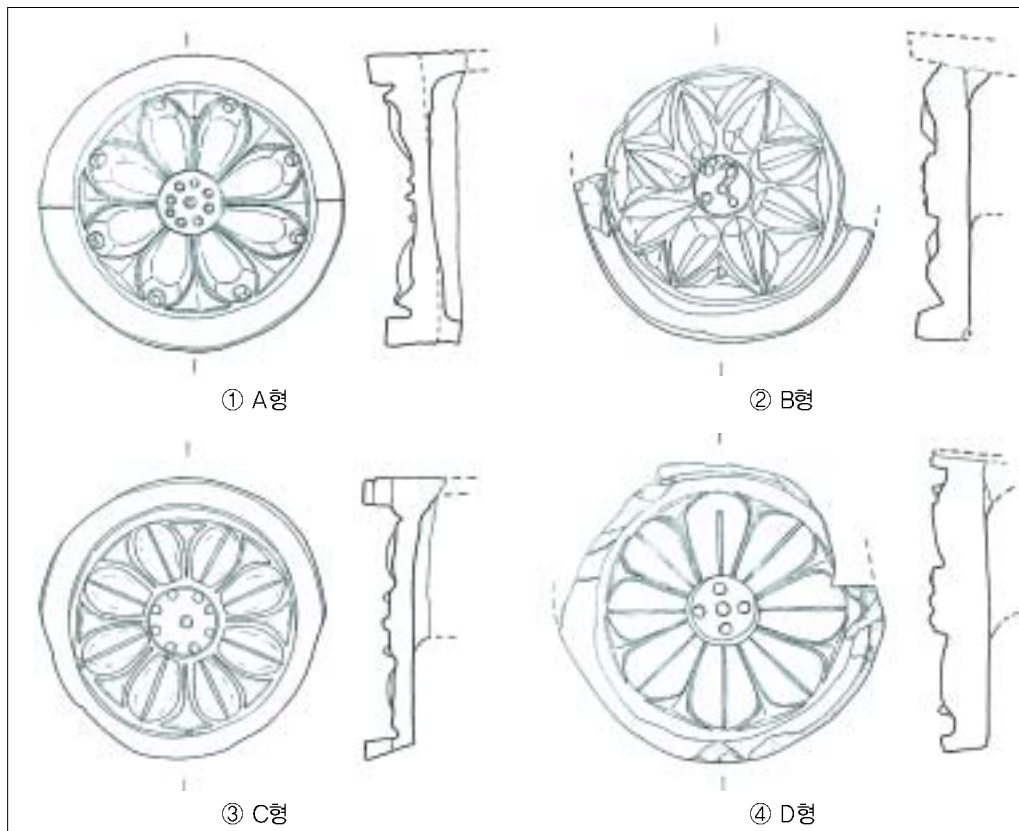


그림 3. 동범와의 접합기법 형식



사진 1. 와범의 흔적으로 가운데 세선이 나타나는 막새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慶州古蹟發掘調査團, 1985, 『月城垓字』試掘調査報告書

-----, 1990, 『月城垓字』發掘調査報告書 I

-----, 1991, 『年報』1號

-----, 1992, 『年報』2號

-----, 1993, 『年報』3號

-----, 1994, 『年報』4號

-----, 2004, 『月城』地表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78, 『雁鳴池』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發掘調査報告書 I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科, 1995, 『慶州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中央文化財研究院·慶州市, 2005, 『慶州 蘿井』-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아름다운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5, 『고구려 와당』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5,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國立中央博物館, 2002, 『유창중기중 기와·전돌』

國立中央博物館, 1990, 『井內功寄贈瓦甍圖錄』

영남대학교 박물관, 2005, 『隱逸의 秀麗한 꿈 - 新羅 瓦當』

國立公州博物館, 1988, 『百濟瓦當特別展』

고경희, 1989, 『안압지』, 빛깔있는 책들 28, 대원사

김성구, 1999, 『옛기와』, 빛깔있는 책들 122, 대원사

金東賢 외, 1976, 『新羅의 기와』 建築과 文樣(上), 韓國建築史大系 V, 東山文化史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제와장』 重要무형문화재 제91호

金化英, 1967, 『三國時代 蓮華紋研究』, 『歷史學報』 34

-----, 1965, 『蓮華紋 樣式變遷에 對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洪思俊, 1962, 『皇龍寺址 出土 瓦 數種』, 『考古美術』 24, 考古美術同人會

- 尹根一, 1977, 「統一新羅時代 瓦當의 製作技法에 關한 研究-雁鴨池出土遺物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誠龜, 1981, 「雁鴨池 出土 古式瓦當의 考察」, 『美術資料』 29, 國立中央博物館
- , 2000, 「新羅瓦當의 變遷과 그 特性」, 『기와를 통해 본 고대삼국의 대외교섭』, 아름다운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 특별전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국립경주박물관
- , 2005, 「신라 기와의 분류와 그 변천」, 『隱逸의 秀麗한 꿈 - 新羅 瓦當』, 영남대학교 박물관
- 金有植, 1984, 「月城郡 川北面의 新羅窯址」, 『慶州史學』 3, 東國大 慶州大學 國史學科
- , 2000, 「7~8세기 新羅기와의 需給」, 『기와를 통해 본 고대삼국의 대외교섭』, 아름다운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 특별전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국립경주박물관
- , 2001, 「7~8世紀 新羅 기와의 需給」, 『慶州文化』 7, 慶州文化院
- , 2001, 「기와를 통해 본 新羅·高句麗의 對外交渉」, 『岳美術史學』 2號, 岳美術史學會
- , 2005, 「황룡사지 출토 신라기와의 研究成果와 課題」, 『제2회 한국기과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 기와를 통해 본 미륵사와 황룡사』, 한국기과학회
- , 2005, 「古新羅~統一新羅기과 研究의 再檢討」, 『신라고고학-분묘와 기와를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 吳英勳, 1987, 「新羅王京에 對한 考察 -成立과 發展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洛中, 1996, 「慶州 月城周邊 出土 原三國時代 後期土器」, 『韓國上古史學報』 21輯
- 李相俊, 1997,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鎬詳, 1997, 「新羅王京의 宮城址 研究」, 大邱카톨릭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閔德植, 1990, 「新羅의 慶州 月城考」, 『東方學誌』 66輯, 延世大東方學研究所
- 南天祐, 1989, 「仁旺洞 王城(在城, 半月城)의 建造時期에 對하여」, 『歷史學報』 123輯
- 朴方龍, 1998, 「新羅 王京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Abstract

An Examination on Dongbeomwas of Convex Roofing Tiles

Lee Seonhui

Wolseong in Gyeongju is a historic fortress site of Silla constructed under the reign of Paganisageum that played politically and militarily important roles. The moat surrounding Wolseong had a function of protecting the fortress in wartimes but became a part of gardening in the unified Silla era.

Lots of relics have been excavated from Wolseong moat since 1985. Among them a great number and kinds of convex roofing tiles are regarded as invaluable sources to show different aspects of Silla, from its earlier time through to the unified and on.

Roofing tiles were widely used for national buildings such as royal palaces, temples and fortresses and even for other popular architecture and have been dug out a lot more than any other relics. Research on them, however, has been done poorly. Vigorous study is in progress with increasing number of roofing tiles coming from many recent excavations, though it has been limited to the studies on general genealogy of patterns and manufacture processes.

Thus this essay seeks to find which are dongbeomwas, roofing tiles of a same mold, out of convex tiles with the pattern of a unilobed lotus flower dug out of Wolseong moat. It also attempts to identify dongbeomwas by examining detail characteristics of roofing tiles which have been confusingly termed as yusawa, similar roofing tiles, or donghyeongwa, roofing tiles of the same shape. The significance of identifying dongbeomwas could be emphasized by various facts resulting from researches on dongbeomwas: the ways to identify them

correctly, their time sequence and their excavated sites.

In conclusion, dongbeomwas were identified out of many kinds of convex tiles. If they were excavated from the same site, they share some common features. The sites where they were dug out also tell what changes were made with passage of time and what relations they had with neighboring Anapji.

Since roofing tile molds haven't been found yet, the only way to identify dongbeomwas is to examine details of roofing tiles. Dongbeomwas excavated in Wolseong moat help to discuss the time of each district of it. Meanwhil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erm 'dongbeomwa' be used only after exact examining.

Keyword : Wolseong moat, single petal of a lotus, roofing tile mold, dongbeomwa, pond moat, masonry moat, Anapji.